

1위
ABC 공인 유료 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내가 있는 동안 KIA V12 해낼 것”

‘150억 타자’ 나성범 고향팀 KIA 입단식



‘150억 원의 사나이’가 등번호 47번을 달고 팬들 앞에 섰다. 6년 총액 150억 원의 초대형 FA 계약을 통해 고향팀 KIA의 일원이 된 나성범이 1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공식 입단식 후 주변의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다짐하며 힘차게 배트를 돌리고 있다. 광주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내가 특히 좋아하는 빨간색·검은색 예쁜 KIA 유니폼 입어보고 싶었죠 47번 양보해준 후배 너무 고마워 후배들에게 노하우 아낌없이 전수” 김중국 감독 “우익수·3번타자 염두”

“안녕하십니까, KIA 타이거즈 외야수 나성범입니다!”

2022년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나성범(33)이 KIA에 정식으로 입단했다. KIA는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나성범의 공식 입단식을 진행했다.

나성범은 장정석 KIA 단장으로부터 등번호 ‘47’이 적힌 유니폼을 받았다. 47번은 나성범이 NC 다이노스 시절부터 달았던 배번이다. 포수 이정훈(28)이 2022시즌 등번호로 점찍었으나, 나성범이 입단

하자 흔쾌히 양보했다.

나성범은 먼저 “아구를 하면서 꼭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었던 유니폼이다. 상대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이 매우 예뻐요. 또 내가 특히 빨간색과 검은색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47번을 달려고 했던 후배가 있었다고 들었다. 양보해줘서 너무 고맙고, 구단에서도 배려를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입단 포부로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신 KIA 구단 주님과 대표님, 그리고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 금액(6년 총액 150억 원)에 대한 부담은 없다. 준비를 잘해서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범은 이날 자신의 KIA 입단을 축하해주기 위해 자리한 후배 장현식, 황대인과 함께 특별한 세리머니를 보여주기도 했다. 3명이 손가락으로 함께 ‘V12’를 만들어 타이거즈의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한 염원을 드러냈다. 그는 “KIA는 V12를 해야 하는 구단이다. 내가 있는 동안 꼭 우승을 하고 싶어

선수들과 얘기를 나눴고, 그런 세리머니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의 가세에 KIA 팬들의 기대는 높다. 나성범은 지난해까지 1군 9시즌 통산 1081경기에서 타율 0.312, 212홈런, 830타점, 814득점, 94도루, 장타율 0.538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나성범은 “어떤 역할이든 준비돼 있다. KIA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여러 잠재력 있는 후배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베테랑으로서 개인적인 노하우도 최대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중국 KIA 감독은 “나성범은 다른 선수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수다. 하던 대로만 하면 본인 이 이제까지 냈던 ‘평균’을 다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용 방안에 대해서 “포지션은 우익수로 고정한다. 타순은 3번을 생각하고 있다. 스프링캠프 때 다른 선수들과 시너지도 살펴 최종적으로 타순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4면

광주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넷플릭스, 2022 콘텐츠 라인업 공개



넷플릭스가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28일 공개하는 오리지널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사진)을 꼽았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K드라마·영화·예능... 올해 25편 쏟아진다

학원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 최고의 기대작 한국판 ‘종이의 집’ 영화 ‘정이’ 등 공격적 투자

‘오징어게임을 이을 히트작은?’

지난해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으로 세계를 휩쓴 넷플릭스가 19일 올해 콘텐츠 라인업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10편이 늘어난 25편이 공개되면서 ‘킬러 콘텐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VP(Vice President)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라인업 발표회에서 최고 기대작으로 꼽은 차기작은 ‘지금 우리 학교는’이다. 28일 공개되는 학원 좀비물인 드라마는 네이버 인기 웹툰이 원작으로,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이 살아 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그린다.

강동한 VP는 “지난해는 ‘오징어게임’ ‘지옥’ ‘마이네임’ 등의 세계적 성공으로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에 선 해”라면서 “앞으로는 TV와 영화가 만나는 중간 지점으로서 콘텐츠 규격, 장르, 포맷에 구애받지 않는 형태의 작품들을 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릴 계획이다. 플랫폼 내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최근 2년 새 6배 이상 증가하는 등 ‘케이(K) 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그동안 주력해온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와 예능 콘텐츠도 제작해 내놓는다. 장르도 다양해졌다. 방송보다 수익 표현이 자유로운 OTT(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크리치(괴수) 등 장르물을 주로 제작했지만 올해에는 로맨스, 범죄물 등 다양한 소재를 내세운 작품들을 잇달아 선보인다.

배우들도 화려하다. 김혜수를 비롯해 김희선, 하정우, 유아인, 황정민, 설경구, 유지태 등 톱스타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김혜수가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한 판사를 연기하는 ‘소년 심판’, 김희선이 주연해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이야기 등을 담은 ‘블랙의 신부’, 스페인 인기 시리즈 ‘종이의 집’을 리메이크한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등이다.

연상호 감독의 신작 영화 ‘정이’, 개구무늬 김신영·송은이·신봉선·안영미가 그리는 예능 콘텐츠 ‘셀럽은 회의 중’도 공개할 예정이다.

강 VP는 “앞서 2016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 콘텐츠 제작에 1조 원 규모의 자본을 투입했다. 2021년 한 해에만 5000억 원 가량을 투자했다”면서 “디즈니+, 애플TV+ 등 해외 OTT와 경쟁을 앞두고 있지만 6년간 한국 콘텐츠 시장과 발맞춘 ‘궁합’(파트너십)을 갖고 있어 자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CJ CHEILJEDANG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충청남도), 사과(충청남도), 브로콜리(충청남도), 산사나무열매(충청남도), 매실(충청남도)

100% 국산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더합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